

# ESG 경영 힘 주는 중소기업 대표들... 미래 생존전략 모색

중기중앙회, 이틀동안 포럼 진행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기조강연  
정부 규제완화, 경영 방향 등 제시

이철우 경북지사와 간담회 열고  
예산·연구개발 등 핵심과제 논의

중소기업계 대표들이 경영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경북 경주에 모였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ESG 경영과 중소기업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과 애로를 진단하고 ESG경영에 대한 통찰력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의 생존전략'이란 주제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라한 셀렉트 경주에서 '2021 백두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2번째인 백두포럼은 그동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열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와 올해엔 국내에서 진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경북 경주 라한 셀렉트 경주에서 '2021 백두포럼'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 7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반기문 전 총장은 포럼 이틀날 열린 기조강연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은 ESG 경영은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기업들의 ESG 경영 내재화와 ESG 실천을 위해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 전 총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에서 기업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대응력

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ESG 전담팀을 신설한 이후 조만간 '중소기업 ESG위원회'도 출범할 계획이다.

첫 날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글로벌 통상환경'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김흥종 원장은 특강에서 주요국의 탄소중립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단계별 지원방안을 수립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중립 목표치 달성에 차질을 주는 기업과는 거래를 중단했고, 미국과 EU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어 이런 규제 흐름은 신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급격히 강화되는 환경규제가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장을 고려해 시행 속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포럼 기간 중 이철우 경북지사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 회장, 이철우 지사 외에도 김강석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등 경상북도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경북도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김한식 청장, 대구지방조달청 신봉재 청장 등 40여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협동조

합의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원정책 참여 지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 확대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증액 ▲폐주물사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경상북도 출연 요청 등 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나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가 인정돼 협동조합이 금융과 판로, R&D 등 각종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인 점을 살피서 정책 수립시 개별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기반인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상북도의 경제는 중소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코로나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CJ대한통운, '준법경영' 국제표준인증 획득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국내 물류기업 최초 인증 받아

CJ대한통운이 글로벌 인증기관인 로이드인증권(Lloyd's Register)으로부터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ISO37301(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13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ISO 37301(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올해 4월에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준법경영 시스템으로 기업의 준법경영, 조직 지배구조, 윤리경영 등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국제표준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16년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을 신설한 뒤 2019년엔 법무·Compliance실로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확대·개편했다. 이후 매년 준법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수행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 확립과 안정적인 운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ISO37301 인증에서 CJ대한통운은 전사적으로 수행한 법령 및 규제

리스크의 사전 파악 및 대응, 임직원 대상으로 한 주제별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장운석 법무·컴플라이언스 실장(부사장)은 "준법경영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근간으로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한 수단이자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다국적 기업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SK매직, 14인용 식기세척기 신제품 출시

SK매직이 신제품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와이드(사진)'를 선보이고 마케팅을 본격화한다.

13일 SK매직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는 와이드 타입으로 한식기 기준, 국내 최초·최대 용량인 14인용 제품이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2021 CES'에서 CES 혁신상(CES 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

제품은 국내 유일의 ▲쿼드웨이브살균세척 ▲듀얼 살균 열풍 건조 ▲트리플 UV청정 보관 ▲자동 문열림·단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기술을 모두 담았다.

SK매직은 제품 출시와 동시에 TV 광고를 선보인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스마트공장 표준지도' 제작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최초로 2000여종의 복잡하고 다양한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다.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는 14일부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디지털라이브러리에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표준 경쟁력을 강화하고 표준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관련 표준을 모아 스마트공장 표준지도를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김승호 기자

## 한샘, 온·오프서 추석맞이 생활용품 할인

한샘이 추석 명절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생활용품 할인 행사를 펼친다.

13일 한샘에 따르면 한샘디자인파크, 한샘인테리어 등 오프라인 매장에선 이달 말까지 키친웨어, 수납용품, 침구류 등 생활용품 총 1000여종을 최대 77% 할인한다.

한샘 식기건조대는 총 20종을 대상으로 최대 50% 싸게 판매한다. '노블레스 식기건조대 2단'은 40% 할인된 11만 3400원에 구매 가능하고 '와이드 시스템 식기건조대 1단'은 50% 할인된 3만



625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주방용품 460여종도 최대 77% 할인한다. 스테인레스 냄비, 후라이팬으로 구성된 '한샘 루나 쿡웨어(사진)' 시리즈는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한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수출bauer 매칭페어 참여사 모집

10월1일 개최...이달 23일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1년 하반기 수출bauer 매칭페어' 행사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수출bauer사업 수행기관 증가와 지원 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수행기관·참여기업 간 매칭 애로해소를 위해 준비했다.

매칭페어는 오는 10월1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다. 매칭 화상상담회, 온라인 컨퍼런스, 우수사례 전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100여개 수행기관이 참여해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등 자사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홍보한다. 매칭페어 참여기업은 원하는 서비스 분야의 수행기관과 사전매칭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컨퍼런스에선 비대면 시대 수출 전략과 해외 마케팅 전략 교육 등의 주제를 다룬다. 참여기업은 자사의 필요에 맞는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들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검찰, '세모녀 살인' 김태현 사형 구형... "극형 외엔 없어" /사진 뉴스스  
▲ '거리두기 반대' 자영업 후시위... 경찰 "사법처리 검토"

▲ 쓰레기봉투에 자신이 낳은 신생아 유기한 20대 입건  
▲ 옛 동료 살해후 사체 유기한 40대... 유족 "엄벌해달라"



▲ "연희동 별채압류 부당" 전두환 머느리, 상고장 제출 /사진 뉴스스  
▲ 해경 근무 때 의경 성추행한 충북 경찰관 검찰 송치